



향일암, 불타

조동례

해 뜨기를 기다리는
새벽 향일암

습길 트며

처음 길을 낸
불타는 불타더라

살아지거나
사라지거나
모든 길은
걸어온 길과 걸어야 할 길 사이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더라

삶을 방화하라 그리고 한번만 죽자
들숨은 날숨 향해 뜨거워라
날숨은 들숨 향해 뜨거워라
뜨거워도 불붙지 못하는
사람들 캄캄한 세상
결코 죽음은 죽음을 죽이지 못하리
이제 우리들의 유산은
유산들 태운 폐허 속에 있다

바다 밑바닥
불타는 불타

佛쑈
해 뜬다

• 조동례 시인
순천작가회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사랑방 <꽃뜨락>을 운영하고 있다. 시집으로 <어처구니 사랑> (2009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문학도서) 등이 있다.

• 향일암 일출
사진은 지난해 12월 20일 원인모를 화재로 전소된 관음성지 여수 향일암에서 한 스님이 새해 떠오르는 해를 보며 빠른 복원을 발원하고 있는 모습.
여수=김현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소설 이미산·시 안병호 동화 박섬주씨 ‘당선’

2010년 불교신문 신춘문예... 11일 시상식

불교문학 신예작가의 등용문인 ‘2010 불교신문 신춘문예’에서 이미산 씨의 소설 ‘관음스카프’가 소설부문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또 시(조)부문에는 안병호 씨의 ‘뽕의 기원’, 동화부문에는 박섬주 씨의 ‘못난이 엄마’가 각각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평론부문은 아쉽게도 당선작을 내지 못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29일 ‘2010 불교신문 신춘문예’ 심사결과를 이같이 확정했다. 이번 신춘문예에는 소설가 한승원 씨(소설),

시조시인 홍성란 씨(시/시조), 장영우 동국대 교수(동화/평론)가 각 부문 심사를 맡았다.

신춘문예 시상식은 오는 1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이날 소설(450만원), 동화(350만원), 시(250만원) 부문 당선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전달된다.

▶작품전문 33·34·35·36·37·42·43면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신년휴무 관계로 1월 6, 9일자 신문 쉽니다

새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신년법어

모든 번뇌를 깨달음으로 다듬어 내고
우리들의 욕망을 나눔의 선행으로 바꿈시다

오늘 아침 떠오르는 밝은 태양(太陽)이 지혜와 깨달음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번신(翻身)의 대기대용(大機大用)이 있고, 만물(萬物)을 변화시키는 항상(向上)의 일구(一勾)가 있으니 모든 번뇌(煩惱)를 깨달음으로 다듬어 내고 우리들의 욕망을 나눔의 선행(善行)으로 바꿈시다.

원(願)은 나와 이웃에게 덕(德)을 입히는 이타적(利他的) 소망이요 나눔은 내일의 복전(福田)을 일구는 자기 헌신(獻身)입니다.

올해는 용서하는 마음을 실천합시다. 용서는 미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자비의 수용이요, 증오와 원한을 사라지게 하는 사랑의 베풀입니다. 올해는 인욕으로 자기를 다스립니다. 분노는 타고르는 불꽃같아 자기를 불태우게 하니, 참고 견디면 백만 가지 장애가 사라질 것입니다.

올해는 두 가지 사랑을 실천합시다. 하나는 착한 것을 사랑하는 일이요, 또 하나는 착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올해는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가집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자기 허물을 깨닫는 일이요, 뉘우치는 것은 자기 업장을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위와 같은 서원(誓願)을 실천하면, 모든 재앙은 사라지고 가문(家門)이 안락(安樂)해 질 것이요, 나라에 덕행(德行)이 가득하면 백성(百姓)이 태평(太平)을 부를 것입니다. 화(禍)와 복(福)은 본래 문(門)이 없으나 스스로 업력(業力)에 따라 부를 뿐입니다.

불기 2554(2010)년 경인(庚寅) 원단(元旦)



도림법전
조계종 종정

신년사

“화합하고 소통하는 문화 만듭시다”

경인년(庚寅年) 희망찬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평안과 건강을 발원합니다.

지난 해 우리는 어느 해 보다 힘들었던 경제위기, 남북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 내면의 갈등 등 수많은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희망(希望)과 서원(誓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난관의 극복은 간절한 발원으로 지혜를 구하고, 무상(無常)의 깨달음을 얻어 보리행을 실천할 때만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인년 새해, 우리는 행복을 참구하는 내면의 간절한 발원을 바탕으로 나와 우리, 나와 사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소통(疏通)하고 화합(和合)하는 성숙된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사회 곳곳에 ‘관용의 꽃’이 피어나고, 비로소 ‘소통의 물결’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면의 진실한 수행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관세음보살님의 보살행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단한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또한 희망과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성무이(丹誠無二)의 마음으로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꿈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며,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바세계의 화평(和平)과 중생계의 안락(安樂)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 모두는 간절하면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발원합시다. 그리고 각자의 소망을 화두삼아 함께 정진하며 희망찬 경인년을 열어 갑시다.

불기 2554(2010)년 새해를 맞아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謹賀新年

소통과 화합, 불교중흥

종 정 도림 법전

원로회의의장	종 산	총무원장	자 승
중앙종회의장	보 선	교육원장	현 응
호 계 원 장	법 등	포교원장	혜 충

